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엘런의 부양책 지지, 대규모 정부 부채에 대한 오래된 생각 변화 반영한 것
 - ◇ (칼럼)-금융화되는 대한민국과 정치인들의 자가당착
 - ◇ (초점)-당국, 위기시 증권사에 외화유동성 직접공급키로..배경과 의미
 - ◇ (초점)-미-중 관계 개선 전망 과했나..원화 '게임체인저'?

.....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선언서와 내각 지명 서류 등에 서명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로이터/공동취재단)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2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03.2	-0.3%	-1.5%	+6.5%	유로	1.2167	0.7%	-0.4%	+8.9%
100엔 대비	1,064.9	-0.3%	-1.3%	+1.1%	엔	103.77	0.1%	-0.5%	+5.2%
유로 대비	1,345.0	-0.9%	-1.4%	-2.3%	위안	6.4595	0.3%	1.1%	+6.7%
위안 대비	170.51	-0.2%	-2.4%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0,996.98	0.6%	1.3%	+7.2%
코스피	3,140.63	1.8%	9.3%	+30.8%	나스닥	13,543.06	4.2%	5.1%	+43.6%
코스닥	979.98	1.6%	1.2%	+44.6%	S&P500	3,841.47	1.9%	2.3%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718.46	3.1%	8.5%	+19.8%
국고채 3Y	0.993%	2.0bp	1.7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326%	1.2bp	-0.9bp	-14.5bp	미국채 2Y	0.125%	-1.0bp	0.4bp	-144.0bp
국고채10Y	1.758%	2.7bp	4.5bp	+3.0bp	미국채 10Y	1.086%	-0.1bp	17.4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52.27	-0.2%	7.7%	-20.5%	한국 5Y	24.9bp	-1.3bp	2.9bp	+0.1bp
금(현물)	1,852.55	1.4%	-2.4%	+25.0%	일본 5Y	14.7bp	-0.3bp	-0.3bp	-4.5bp
TR상품지수	2,726.36	-2.9%	1.7%	+7.8%	중국 5Y	30.7bp	-1.4bp	2.7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월 25일(월)>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5:00)

<26일(화)>

- 한은,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통계청, 2020년 12월 국내인구이동(12:00)
- 기재부,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22:00)

<27일(수)>

- 금감원, 2020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06:00)
- 한은,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기재부, 부총리 녹실회의(07:30)
- 기재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08:00)
- 기재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10:00), 1차관 브리핑(13:30)
- 통계청, 2020년 11월 인구동향(12:00)

<28일(목)>

- 한은,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09:00)
- 한은, 2020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12:00)
- 한은, 2020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행계획 안내(14:10)
- 기재부, 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1월 발행 실적(17:00)

<29일(금)>

- 통계청,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8: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금감원, 2020년 ABS 발행 실적 분석(06:00)
- 한은, 2020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국민연금, 제 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결과 보고 등)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월 25일(월)>

- 미국, 12월 전미활동지수 (22:30)

<26일(화)>

- 미국, 1월 달러스런은 제조업 경기지수 (00:30)
- 일본, BOJ 12월 17-18일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08:50)
-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월 비제조업 경기 전망 서베이 (22:30)
- 미국, 11월 주택가격 (23:00)
- 미국, 1월 소비자신뢰지수 (자정)
- 미국, 연준 FOMC 통화정책회의(27일까지)
- 호주 휴장

<27일(수)>

- 미국, 1월 텍사스 서비스업 전망지수 (00:30)
- 중국, 12월 산업이익 (10: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2월 내구재주문 (22:30)

<28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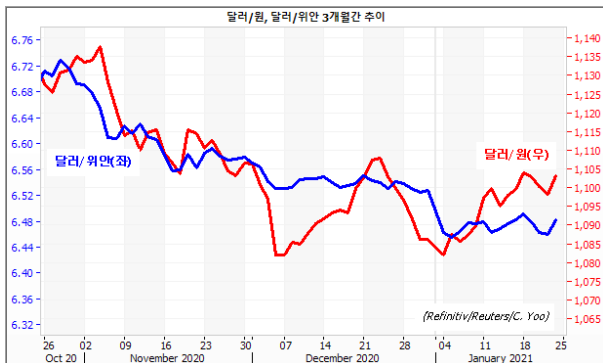
- 미국, 연준 FOMC 금리결정 발표 (04:00),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 일본, 12월 소매판매 (08:50)
- 미국, 12월 건축허가 수정치 (22:00)
- 미국, 4분기 GDP · 근원 PCE 물가 잠정치(22:30)
- 미국, 12월 소매재고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2월 신규주택판매 (자정)

<29일(금)>

- 미국, 1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01:00)
- 일본, 1월 도쿄 CPI (08:30)
- 일본, 12월 실업률 (08:30)
- 일본, 12월 산업생산 잠정치 (08:50)
- 일본, 1월 20-21일 통화정책 회의 주요 의견 공개 (08:50)
- 유로존, 12월 총 유동성(M3) 증가율 · 가계대출(19:00)
- 미국, 12월 개인소득 · PCE 물가지수 (22:30)
- 미국, 4분기 고용비용 (22:30)
- 미국, 1월 시카고 PMI (22:45)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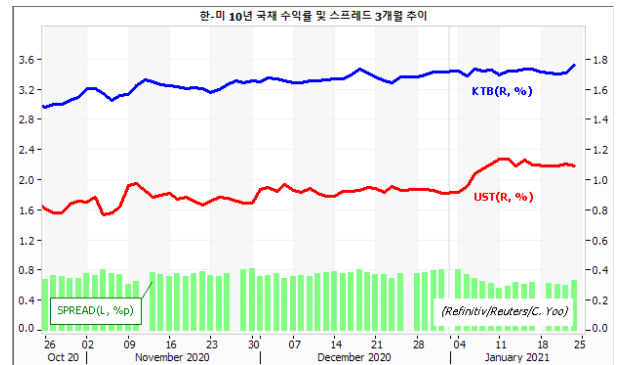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090-1110 원이다.
- 글로벌 달러, 미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최근 들어 이렇다 할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달러/원도 1100 원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기를 반복 중이다.
- 아울러 수급도 양방향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28 일(한국시간) 새벽에 끝날 올해 첫 연준 정책 회의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전망이다.
- 이번 회의에서 정책 변화는 예상되지 않지만 연초 테이퍼링 논란으로 시장이 흔들렸던 만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은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4 일 프린스턴대와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산 축소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시기상조라고 이미 언급한 만큼 이에 따른 재확인 발언이 있을 것으로 대체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다른 코멘트에서 시장의 예민한 해석도 나올 수 있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 투기세력들의 달러 숏포지션이 10년 만의 최대치로 확장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 한편 이번 주중에는 미국 4분기 GDP 잠정치, 12월 소매재고, 개인소득 및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등 여러 핵심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 이같은 지표 결과에 따른 글로벌 달러 반응이 원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국내 지표로는 4분기 GDP 속보치와 12월 산업활동동향 등이 예정돼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대규모 재정 부양 가능성으로 무너진 투자심리 등을 반영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금리 레인지 상단으로 작용했던 지지선에 기대 롱플레이를 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의 선전 여부가 관건이다.
- 지난주 수급과 펀더멘탈, 심리 등 가격을 결정하는 3대 재료가 모두 흔들리며 금리가 급등했다.
- 향후 국채 발행 물량 확대 전망에 더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우려까지 겹쳐지며 시장 참가자들의 수급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여당 일각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말에 이슈화하고 있는 정책들이 채권 매수심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여기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10년물 물가연동채권(TIPS)의 손익분기인플레이션율(Breakeven Inflation Rate)이 2%를 훌쩍 넘기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향후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 국내 채권 투자자들은 학습효과로 버티는 중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국채 발행 증가가 수반되는 정책을 계속 공론화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채권 매수심리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한국은행 오는 26 일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 대내외 증시 흐름 역시 관건이다. 특히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 오는 27 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관심이 있다.

(초점)-옐런의 부양책 지지, 대규모 정부 부채에 대한 오래된 생각 변화 반영한 것

워싱턴 (로이터)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부양 계획을 옹호하는 그의 발언은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이코노미스트들의 꾸준한 생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옐런은 상원금융위원회 의원들에게 차입 금액은 있고, 대신 지급되는 금리와 그에 따른 수익에 초점을 맞추라고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GDP의 일부분으로서 부채의 이자부담은 2008년 금융위기 전보다 더 높지 않다"며 "판데믹 및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적자재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보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이자 지급액은 현재 연간 약 6,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글로벌 금리로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지급액은 미국의 경제 생산의 일부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이 사실은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계획에 대해 논의할 때 중요할 것이며, 특히 공화당원들이 판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더 지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사우스 다코타의 존 톰 공화당 상원의원은 작년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차입한 3조 5,000억 달러 이상에서 더 늘어나면 "언제 붕괴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나는 이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어느 당에서도 이 이야기를 더이상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Can the U.S. "act big" on spending?

President-elect Joe Biden's pandemic spending plans are getting pushback because of the extra debt. Treasury Secretary-designate Janet Yellen says low interest rates make the program affordable.



Note: Interest and debt share indexed to 1990. Source: St. Louis Federal Reserv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그리스처럼 되지 말아야

최소 옐런의 경제 동료들은 2007-2009년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 그리고 그에 따른 유로존 내 문제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 왔다.

그리스와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채 상황에 어려움을 겪자, 상대적으로 큰 다른 유럽 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들 국가들에게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회복을 촉진하는 대신 실시한 혹독한 긴축정책은 그리스를 더욱 깊은 구렁으로 몰아넣었고, 적자를 더욱 악화시켰다.

나중에야 IMF는 그 결정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폭넓은 연구 끝에 올리비에 블랑샤르 당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지출이 현재처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약한 위기 상황에서 이점이 더 많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 지출에 대한 더 광범위하고 안정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현대통화이론 등 과거 비전통적인 발상들이 더 주목받기 시작했고, 주류 이코노미스트들은 부채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좀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 예로 블랑샤르 전 IMF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금리가 경제 성장을보다 낮을 때, 잘 구상된 공공투자를 억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마이클 스트레인 등 공화당 성향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차입 수준은 영원히 무시될 수 없는 규모

지만, 어떤 위기 대응에도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장기적 우려라고 주장해왔다. 제롬 파월 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제이슨 퍼먼과 같은 민주당원들은 중요한 것은 부채 수준이 아니라 차입비용이라는 옐런의 논점에 틀을 정립하기 위해 토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옐런은 "우리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요약할 수 있는 지표는 없지만, 내가 유념하기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는 이자 부담"이라며 "우리는 현재 경제에 대한 부채 규모가 커져가고 있지만, 이자 부담은 그렇지 않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금융화되는 대한민국과 정치인들의 자가담 작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문재인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초기에만 해도 이전 정권 때와는 달랐던 듯하다.

현 정권 초반 청와대를 방문했던 외국계 IB 임원들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비쳤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식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넣고 돈 먹는 투기의 장일 뿐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천포인트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요즘 청와대의 시장 인식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회의에서 주가 상승을 '희망'이라는 단어와 연결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주가 상승과 현 정권의 치적을 연결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인정할 건 해야 한다. 코로나 19 파고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더해 '언택트' 경제에 특화된 새로운 산업군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원화

자산 저평가 흐름이 해소되며 대한민국이 비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1980년대 미국 금융화 데자뷰

다만 두려운 것은 최근 국내 시장의 움직임에서 금융화가 본격화됐던 지난 1980년대 미국의 모습이 읽힌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빠른 속도로 금융화됐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자본이득세 인하, 기업의 자사주 매입 허용 조치는 대규모 자본의 주식시장 유입을 초래했다. 당시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이자율이 외국 자본의 미국 국채 매입으로 이어지며 모든 유형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금융화가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와 함께 가속화됐다는 정도 주목할 부분이다. 1980년에 미국의 퇴직연금이 민영화된 이후 연금 펀드나 401K 퇴직연금 계획 등을 통해 주식투자에 발을 담그는 개인이 늘어난 것이다.

손대는 것마다 가격이 오르는 시대에 더 많은 개인이 투자에 발을 담그게 됐고 이는 다시 더 높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실적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가가 한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 기업 경영진의 관심은 '비정상적 정상화'에 맞춰진다. 높은 수준의 주가를 계속 유지하는 게 경영진의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들은 처벌받는 게 시장의 철칙이다.

시장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경영진들이 주식 투자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단기 실적'에 집중하게 되면서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는 점점 더 어렵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경영진들은 재무제표 마사지에 특화된 더 정교한 금융공학에 치중하게 된다.

요즘 같은 때라면 개인 투자자들의 호감을 살 만한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 발표도 해볼 만할 것이다.

경영진들이 주식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올인'하는 동안 자산의 비효율적 배분과 함께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은 악화되는 금융화의 역설이 나타나게 된다.

금융시장이 호황으로 치달을수록 실물 경기의 진동 폭이 더 커지는 것도 금융화의 역설 중 하나다. 호황의 폭이 깊어질수록 불황의 폭도 깊어지고 더 잦아진다.

▲자산가격 상승 이용하는 정치의 위협..금융화 속도 키울 수도

더구나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시장의 인질이 된 상태다. 코로나 19 사태는 엄청난 수준의 빚을 통해 어떻게든 헤쳐나간다 해도 다시 불황이 찾아올 때마다 시장은 더 많은 돈을 풀라며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꿈꿔왔던 코스피지수 3천포인트 돌파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제동이 걸리지 않는 자산가격의 상승은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당기며 시장 전반의 금융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많은 이의 예상대로 현재의 자산가격 상승 추세가 단숨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무리수'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실물 경제의 피해는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시장의 투자 지형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게 우려되는 이유다. TV를 켜면 자칭 구루라는 사람들이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혹시라도 이 욕망의 열차를 놓칠까 예금, 적금을 깨고 주식을 매입하는 시대다.

시장의 급변동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는 뭐하냐'며 투자자들이 거침없이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불만이 현실 정치와 맞물리면서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면 이것 자체가 지속적인 교란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의결권 기준 관련 해프닝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의 맛보기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로 돼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4월에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펼쳐지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비슷한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와 표심에 휘둘리며 주식 투자 광풍에 더 힘을 실는 동안 대한민국의 금융화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수십 년 후 지금을 돌아보며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초점)-당국, 위기시 증권사에 외화유동성 직접공급 키로..배경과 의미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당국이 외환 건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수위를 대폭 높이기도 했지만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경로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당국은 작년 3월 국내 외환시장이 극심한 불안 양상을 보인 데 대해 증권사의 갑작스러운 달러 수요 등 비은행권의 단기 외화 수요가 급증하며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당국은 20일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3종 지표를 도입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확대하기로 했다. (Full Story)

하지만 당국은 단순히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위기 발생시 더욱더 효율적인 외화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발표해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작년 3월의 경험..유동성 직접 공급 경로 필요

당국은 해외투자 확대로 대외자산이 급증했지만 위기시 이에 따른 대외 안전판 역할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작년 3월만 보더라도 연기금, 보험사 등의 외화자산 회수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결국 외환당국의 외화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만 시장 안정이 이뤄졌다.

아울러 증권사의 우발적인 달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 전반이 요동쳤지만, 외화 유동성 공급이 은행을 통해 흘러가면서 효율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당국은 평가했다.

시장 여건이 불안해지자 은행권의 중개 기능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신용도가 낮고 적정 담보가 부족한 비은행권 등과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시장 위기 발생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이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증권금융의 자체적인 자금이나 시장 조달을 통해 또는 필요시 외환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은행이나 시장을 우회하지 않고 필요한 증권사에 직접 자금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현재 해외투자시 외화 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의무 예치가 명확하지 않은데,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물론 한국증권금융의 외화 운용 능력을 높여야 하고, 갖춰야 할 세부적인 사안도 적지 않지만 이전처럼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달러 수급 불안이 발생한다면 이같은 경로를 통해 외화 유동성 공급은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3월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통해 시장이 안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원활하게 자금이 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면서 "필요시 (이같은 제도는) 직접적인 자금 전달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위기 때 민간 부문 대외자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마련한 환매조건부 외화 채권 매입 제도도 원활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점)-미-중 관계 개선 전망 과했다..원화 '게임체인저'?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

적 전망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갈등 기류속에 원화의 잠재적인 강세 재료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나온다.

연초 갑작스럽게 진행된 위안화 강세를 두고 광범위한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 중국 경기 개선 기대 및 내수 부양지지를 강조한 쌍순환 정책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었지만, 이와 함께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완화 기대도 만만치 않게 반영됐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못할 조짐도 보인다.

▲ 대중국 강경노선 조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는 주요 시장 변수로 꼽혀왔다. 사실상 미-중 관계 회복에 따른 위안화 절상 기조는 올해 원화 강세 전망의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 신정부 역시 이전 정부의 대중국 강경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은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 28명에 제재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원들은 중국 제재 관련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재닛 옐렌 재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재검토하고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며, 이 두 가지가 끝날 때까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맞서고 중국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도구들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을 강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노동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통상정책과는 차별화되지만,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원화 게임체인저? '글썸'

22일 오전 기준 원화는 올해 달러 대비 약 1.5% 절하된 반면 위안화는 0.5% 절상률을 기록 중이다.

새해 들어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도는 이전 대비 많이 떨어졌다. 작년말 0.9 수준에 육박했던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도는 최근에는 0.1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반등에 따른 달러 반격에 원화 롱 포지션이 보다 적극적으로 언와인딩되고 이에 더해 해외투자를 비롯한 달러 수요가 원화 약세를 부추기면서 최근 원화는 위안화와 다소 동떨어진 흐름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가 다소 훼손되면서 단기적으로 위안화가 흔들릴 경우 원화도 이와 함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시장참가자들은 이를 앞서 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미-중 관계 개선 여부는 달러/원 환율의 빅피쳐 상의 하나의 재료지만 현재 이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스탠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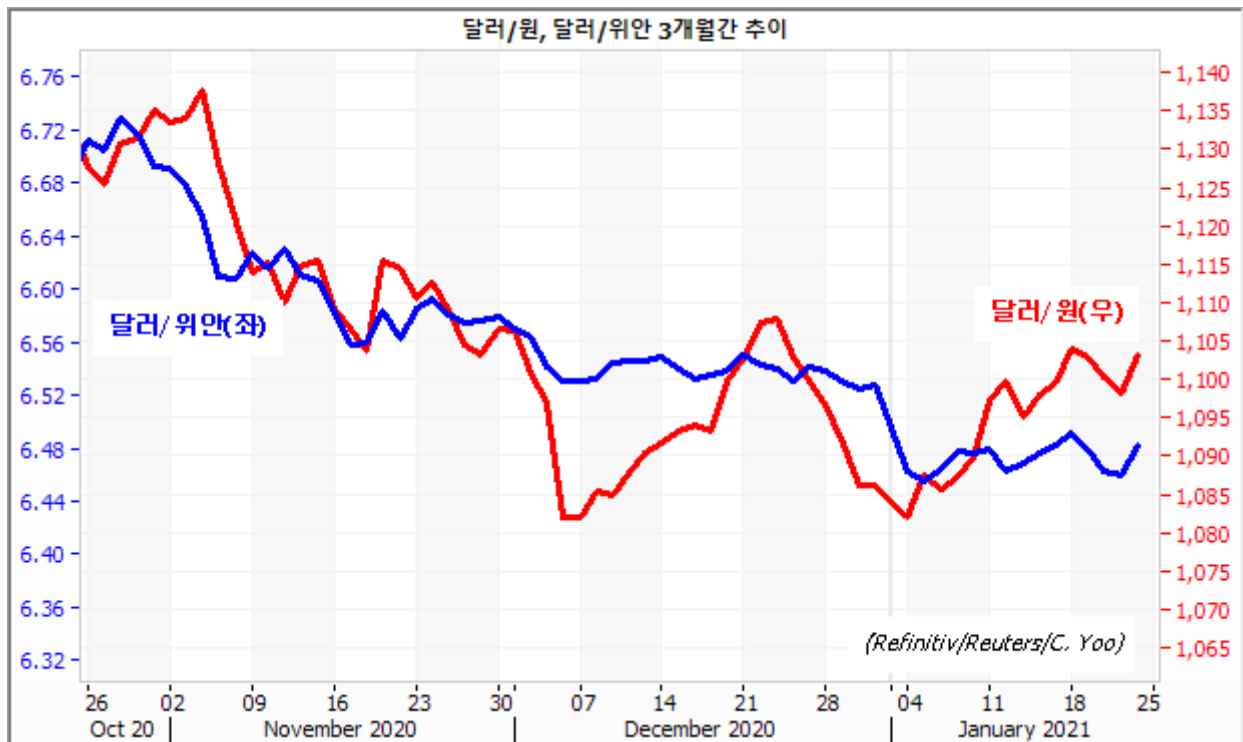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은 "기대만큼 미-중 관계에 있어 변화된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인 위안화 전망을 바꿀 단계는 아니"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당장 내부적인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데다 중국은 내수 부양정책을 추구하며 위안화 절상 기조를 이어가려할 것"이라면서 "대중국 정책에 대한 급격한 선회는 없을지라도 당장 우려가 높아질 단계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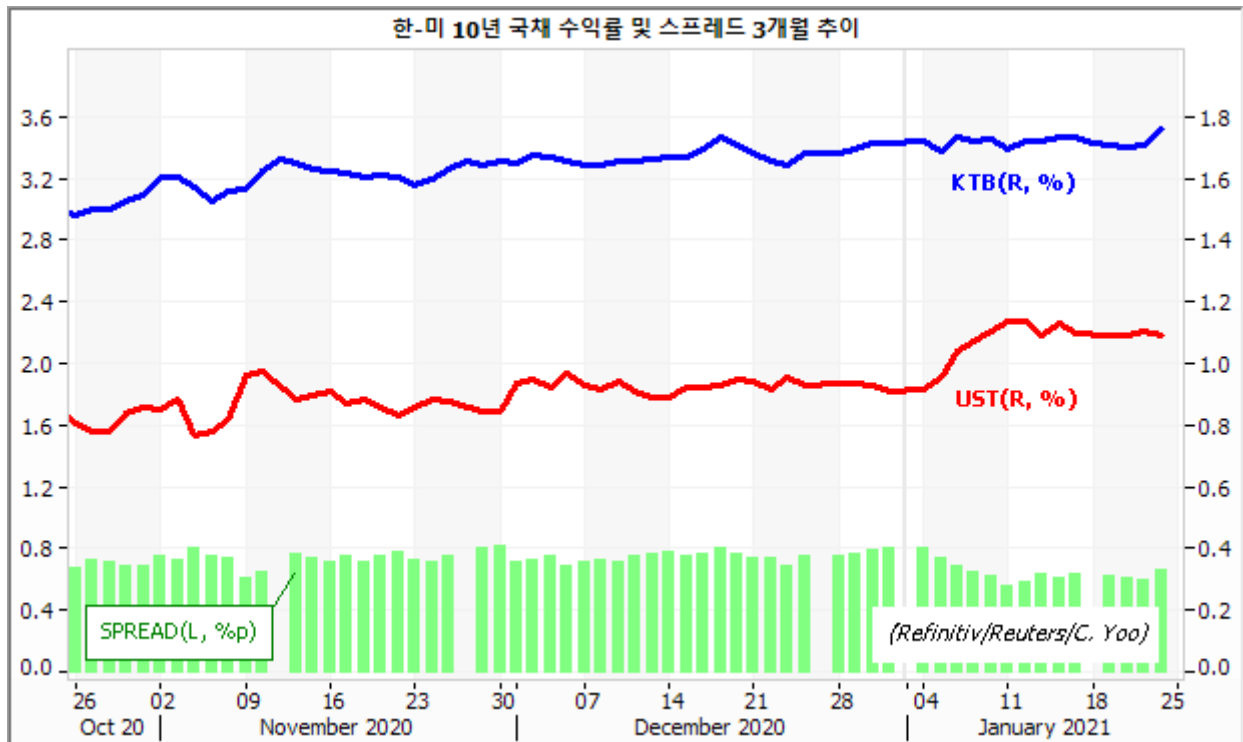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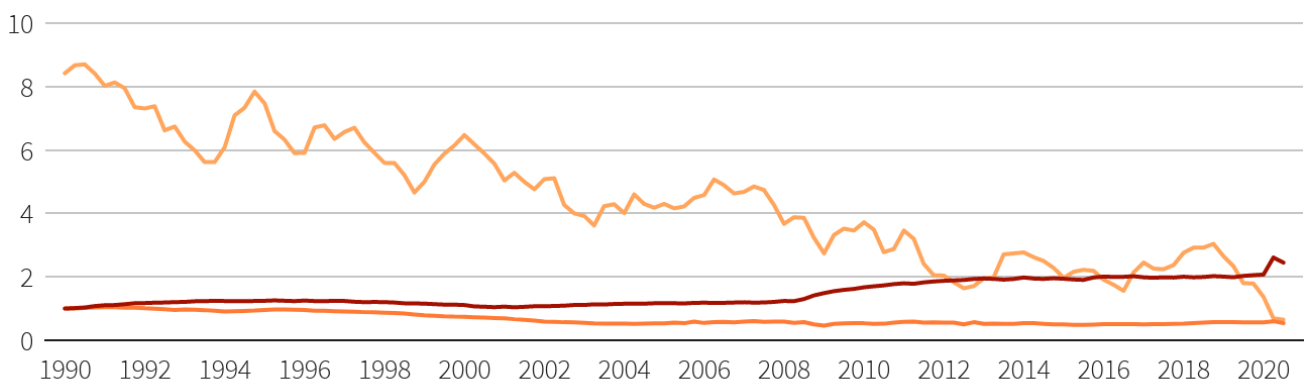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an the U.S. "act big" on spending?

President-elect Joe Biden's pandemic spending plans are getting pushback because of the extra debt. Treasury Secretary-designate Janet Yellen says low interest rates make the program affordable.

— Interest share of GDP — Debt share of GDP — 10 year Treasury yield



Note: Interest and debt share indexed to 1990.

Source: St. Louis Federal Reserv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